

광주·전남 지자체들 소식지 발행 붐물

매년 혈세 20억 들여 낮 뜨거운 치적 홍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단체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소식지 발행 예산은 최저 1600만원에서 최고 1억 8576만원으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1부당 제작가격도 61원에서 4250원까지 70배의 격차를 보였다. 장흥군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선 4~5기 동안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았다.

6일 광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전남 29개 자치단체의 2010~2012년 소식지 발행

연간 1천만부 이상 배포
1부당 제작단가 70배 차이
“예산낭비” 장흥군만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전체 소식지 제작비는 연간 20억 8083만원에 달했으며, 자치단체별 평균 제작비는 7175만원이었다.

1회당 총 발행부수는 94만 9500부로, 자치단체별로 1회 발행 때 평균 3만 2741부씩을 찍어냈다. 또, 연간 누적 발행부수는 1073만 4000부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연 평균 37만 138부씩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지 1부당 평균 제작가는 793.2원이었으며, 1면(쪽)당 평균 제작가는 20.5원이었다.

연간 가장 많은 소식지 발행 예산을 지출한 곳은 전남도로 1억 8576만원이었으며, 광주시(1억 8257만원), 해남군(1억 8116만원), 장성군(1억 7300만원), 광산군(1억 6100만원), 북구(1억 3353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함평군은 1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지출했다. 이어 보성군(1700만원), 나주시(1763만원), 영광군(2420만원), 광양시(2980만원) 등이 3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들었다.

연간 발행횟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전남도로 매월 2차례 6만부씩을 제작, 총 144만부를 배포했고, 북구 134만 4000부(월 2회·5만 6000부), 광주시(월 2회·5만부)와 여수시(월 1회·10만부) 각각 120만부 등이었다.

소식지 1부당 제작비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났다. 광주 남구는 소식지 1부당 제작가격이 6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구(73원), 여수시(80원), 동구(86원), 북구(99원) 등이었다.

반면 보성군은 1부당 제작비가 4250원이나 됐으며, 곡성군(3123원), 영광군(2200원), 강진군(1970원), 장성군(1730원), 고흥군(1212원), 영암군(1044원), 완도군(1000원) 등 8개군이 1000원 이상을 지출했다.

1개면(쪽)당 제작비에서도 보성군이 가장 많은 73원을 지출했고, 곡성군(52원), 완도군(50원), 무안군(44원), 함평군(40원), 강진군(39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구례군은 면(쪽)당 제작비가 2.5원에 불과했다.

한편, 소식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정책이나 치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었다. 광주외 한 지자체는 지난 4월호 소식지에서 총 40면 중 특집으로 6개면에 걸쳐 구청장 홍보 인터뷰 등을 게재했으며, 같은달 ‘봄호’ 소식지를 발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도 군수의 사진이 13개면에 등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12일 서울서 남북 장관급회담 열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당국 회담 北 제의 수용...이산가족 상봉도 3년만에 재개 전망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한데 대해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관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낮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이번 당국간 회담 제의에는 7일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특별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민족공동행사와 함께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



탈북자 한마음 체육대회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6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에서 북부하나센터(센터장 김형수) 자원봉사자들과 탈북자들이 풍선 옮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씨 내정

보성출신...오늘 최종 선임



내정했다. 회추위는 “임 내정자가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성은 경험으로 농협금융 경영 환경을 빠르게 이해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때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장의 유력 후보로는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로 거론됐으나 막판에 임 전 실장이 부상했다.

회추위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있고 농협의 신·경 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여했던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임 전 실장을

중도 퇴임하는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으로 보성 출신 임종룡(54)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관련기사 9면>

농협금융은 6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에서 임 전 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그동안 농협금융 차기 회장의 유력 후보로는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로 거론됐으나 막판에 임 전 실장이 부상했다.

회추위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있고 농협의 신·경 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여했던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임 전 실장을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3 04.20-10.20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2회 아줌마 축제

오늘 개막 합니다

2013 06.07-06.09 3일간 |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선) 시낭송대회 농산물개장식 식전공연(넌타) 개막식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나도스타다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아줌마가요제(예선)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아줌마골든벨 완상의 매직쇼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아줌마가요제결선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주최 순천시 61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주)아리오커뮤니케이션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NH농협, 수협, NH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 전남지역본부, KIA 기아자동차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공연참여신청 http://cafe.daum.net/azim2 문의사항 062-220-0555